

# “아이들에게 놀이는 곧 배움이자 성장”

### 전북교육청사 놀이터 ‘이음’ 개장식 가져... 놀이 정책 활성화 취지

전북교육청사 놀이터가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과 부서 과장 및 참내 직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 김명지·박희자 도의원, 우전초 병설유치원 원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놀이터 ‘이음’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사 앞 잔디광장에 조성된 놀이터 ‘이음’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놀이밥 60+ 프로젝트 정책의 상징적 공간으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며 꿈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로 조성됐다.

놀이시설로는 그물놀이대·미끄럼틀·모래놀이 테이블·암벽 및 줄오르기·감각놀이대(링, 북) 등이 설치됐으며, 통합놀이대인 만큼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기구들의 간격과 높이를 유지했다.

개장식은 경과보고, 놀이터 개장 광식 및 기념촬영, 놀이터 둘러보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 시작 전 놀이밥퍼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놀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놀이활동의 재미와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장식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놀이는 곧 배움이자 성장이

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놀이환경을 개선하고 놀이시간을 적극 보장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음’이라는 명칭은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놀이터,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부족한 놀이공간과 휴게시설을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산학협력 고도화 맞춤 인력 양성 박차

### 전북대 LINC+사업, 교육부 1차 단계평가 통과... 126억 지원받아

지난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중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선정돼 사업을 수행해 온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교육부가 실시한 1차 단계평가를 통과해 계속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사업을 수행해 온 75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심사를 거쳐 전북대를 포함한 61개 대학(산학협력 고도화형 45곳·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16곳)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차 단계평가를 통과한 전북대는 2021년까지 3년 간 국고 114억원과 대응 자금 12억 원 등 126억 원 가량을 지원 받는다. 2012년부터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와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국내 대학 중 최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는 전북대는 이번 평가를 통해 LINC+ 사업을 확산·지속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전북대는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와 함께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융합과 농식품

산업, 전통문화 산업 등을 특화 분야로 선정해 융합형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총괄기구인 CENU-ICC 및 J-ICC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연계형 산학협력 협의회 구축, 지역기업 및 연구소와 취업연계 기반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도농산업 상생 및 사회적기업 혁신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융합형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E.A.T. 교육인증제, LINC+ 4step 융합인재양성프로그램 및 4차 산업혁명 융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생 진로지도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성공형 5-STEP 교육프로

그램’과 ‘New 실크로드 시스템’ 등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LINC+ 에듀발전소(학생청의작품제작소)를 운영하여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3D 프린터, 드론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창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전북대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이번 재선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고도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대 LINC+사업단의 특화된 시스템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맞춤형 창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17개팀 선정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또래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17개팀을 선정, 오는 30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는 중·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팀당 7~10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2명 이상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다.

이 날 발대식에서는 대표자 선서와 작별 우수활동팀의 사례발표, 금연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금연에 대한 공감력을 키울 예정이다.

발대식이 끝난 뒤에는 피켓을 들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각 학교별 금연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는 12월까지 활동하면서 △금연정책 홍보 △프래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흡연예방 캠페인 △사제동행 흡연예방 등 지정 미션을 수행하며, 특별로 독창적인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

각 팀에는 운영비 60만원이 지원되며, 연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활동팀에는 학년 말에 교육감상 표창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준다. 또 교육청 지정 미션 등 기본활동을 수행한 서포터즈 전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을 증가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또래 흡연예방 및 금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현장체험 통해 특수교육 발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 익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협약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대표 안근선), 전주기전대학 말산업스프츠채활과(대표 박영재)는 ‘현장직업체험’ 및 ‘재활승마 스포츠 활동’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6일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오는 4월부터 익산 관내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익산시장 애인보호작업장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체에서 현장직업체험을, 익산 관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전주기전대학 재활승마장에서 재활승마 및 말과의 교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협약기관인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위 조재원)의 10개 기관, 익산시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원,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현장직업체험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실적 보고 및 평가를 하고 2019년도 현장직업체험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기존협력기관들과 보조공하지원, 상담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및 인권 보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경 교육장은 “현장직업체험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관련서비스, 인권보호 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이 특수교육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중국어 특성화로 공인된 ‘고창북고’

### 오늘 ‘공자학당’ 개원... 맞춤형 진로 탐색 제공

고창북고등학교(교장 전삼식)가 오늘 본교 체육관에서 ‘중국어교육부 공자학당’ 개원식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호남대 박상철 총장, 순천우 주광주중국어총장, 리홍 주한중국어교육참사관, 김국재 전북교육청 교육국장, 유기상 고창군수, 이희근 고창교육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공자학당 개원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공자학당 유치는 중국 교육부 산하 교육기구인 국가한문(國家漢辦)이 직접 ‘중국어 교육역량’에 대한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평가·선정해 이뤄졌으며, 이로써 고창북중·고는 중국어 특성화 학교로서 공인되었다.

고창북고는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오는 2019년부터 4년간 전북교육청 유일 ‘중국어 진로 중점학교’로 지정되었으며, 新HSK 2~6급(중국어 공인 급수시험) 고사장 운영, 전문단위 말하기 대회 주최, 중국 명문 대학과 협약 체결 등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큰 성과를 보여왔다.

현재 중국어 중점학급 편성, 중국어 전용 교실을 통한 우수한 외국어 학습 환경을 갖추고 중국 교육부 파견 원어민교사(CPK)가 학교에 상주하여 모든 정규 수업시간에 한국인 중국어 교사와 팀티칭으로 중국어를 지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중국어 방과후 특강, 중국어 자율동아리 운영, 중국 현지문화탐방 및 중국 글로벌 리더십 캠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중국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북고 전삼식 교장은 “중국어 어학, 무역, 외교 경영 등 중국어 교육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로가 무궁무진하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중국어에 능통한 학생에게는 수준 높고 다채로운 중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중국어를 처음 시작해보려는 기초 학생들에게 중국어에 대한 즐거움과 체계적인 중국어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학교의 장점이자 보람이다”며 공자학당 개원을 기점으로 중국어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익산교육지원청, 배움과 치유의 혁신교육아카데미 운영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은 2019 익산혁신교육아카데미를 익산관내 교직원과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4월~10월까지 총 6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오는 4월 2일 15시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 하는법(다산예유, 2018)’,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있게 딸 성교육 하는법(다산예유, 2018)’으로 유명한 손경이 저자 강연을 승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한다.

올해로 3년째 운영해 온 익산혁신교육아카데미는 익산시와 함께 주관하는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 교직원들과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배움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강연으로 4월 2일 오후 3시부터 승리문화회관 중공연장에서 ‘손경이관계교육연구소’ 손경이 대표의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있게 딸 성교육 하는 법’을 주제로 아카데미 문을 연다. ‘어쩌다 어른’, ‘제바시’로 유명한 손경이 대표는 현재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관련 주제로 활발하게 강연활동 중이다. 아들과 함께 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다편의 ‘엄마와 아들의 성교육 상담소’ 시리즈로 300만부 이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익산시민이라면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2019 익산혁신교육 아카데미

익산, 교육도시를 디자인하다. ▶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 익산시

기간 / 2019년 4월 ~ 10월(6회) 15:00 장소 / 익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                |                |                |                |                |                |
|----------------|----------------|----------------|----------------|----------------|----------------|
| 04.02.화<br>손경이 | 05.07.화<br>하중강 | 06.04.화<br>노정렬 | 07.02.화<br>조원재 | 09.03.화<br>김성훈 | 10.01.화<br>김성현 |
|----------------|----------------|----------------|----------------|----------------|----------------|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